

정부 사업비 추가지원 없인 정상 개통 불투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급증

공론화 과정 공개액보다 크게 늘어서 "당시 구체적 증액분 알수 없어" 착공 지연·인건비 상승도 원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구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당초 예상됐던 2조2114억원에서 최대 3조1414억으로 치솟고, 지방비 부담도 1조2600억원대로 늘어날 우려가 커지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원활한 공사 진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칫,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거나 축소되면 사업 기간 연장 내지는 일부 수정도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가 시민과의 합의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를 묻는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당초 공개했던 예산보다 최대 93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광주시의 재정 부담 등도 우려된다.

공론화 당시, 광주시가 물가상승 등 실제 공사비 상승 요인을 미처 분석하지 못했다며 '무능 행정'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을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사업비 부담만 급증시켰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 건설이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분이 치솟았다"며 '정부의 대응적인 국비 반영'과 '지방비 부담 절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론화 통한 어려운 결정 속 1단계 사업 진행 중=광주도시철도2호선은 지난 2002년 10월 기본 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2010년 12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지만 1단계 건설공사는 2019년 9월에서야 시작했다.

광주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기본 계획이 수립된 뒤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2018

년 11월 공론화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주시가 당시 시민참여단(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건설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으로 찬성 의견이다 수였다.

당시 1차 조사에서 반대했던 시민참여단 중 35.6%가량이 공론화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투표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 측 시민들은 시 재정 부담 절감, 수송능력 제고 및 공공(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8%다.

문제는 당시 공론화 과정에 제시됐던 사업비가 2조2114억원이었다는 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 산정된 예산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턱없이 부족해 생긴 일이며, 공론화 당시에도 불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액분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 지원 절실, 지방비 부담도 줄어야=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립을 위해 현재 정부에 최대 93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로,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3분의 1가량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애초 광주시는 2013년 12월 기본계획을 짜면서 지하철 2호선의 하루 승객 수요를 22만9000명으로 예상했고, 무인운전 경전철에 차량 2량을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 2량에는 서서 가는 승객들까지 포함해 150~193명 정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늘어 '비용'이 커지는 반면, '수익'이 되는 탑승객 수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없어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사업비 8764억원이었던 2호선 2단계 구간의 증액분이 9300억원으로 치솟은 것은 사업 계획 이후 착공이 늦춰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자재비, 물가,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지가 상승 요인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구간 중 3.1km는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기존 영산강 관통 다리를 지하철 노선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산강 아래 터널을 새로 뚫는데 12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관련 법령이 강화된 것도 사업비 증액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방음시설 등의 규정이 강화돼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분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건립이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시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방비 부담도 현재보다 대폭 줄여줘야 원활한 2호선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1 지역 국회의원-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민형배·이형석·송갑석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무소속 양항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 제공>

민주 '원팀 선대위' 이낙연측 전진배치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맡는다

여성 의원 전면에 여심 공략 복수 정책본부 체제 정책 강화 매머드급 수평체제 내일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169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띄우고 대선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소위 '용광로 선대위'를 표방한 가운데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측과 세계 맞붙었던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되면서 매머드급으로 꾸러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낙연측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 박광온 공동총괄본부장 관측=지난 31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낙연 캠프에서 함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설훈·홍영표 의원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이낙연 캠프에서 저격수 역할을 자임하며 이 후보 측과 전면에서 갈등을 빚었다.

친문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 2기 원내대표를 지낸 홍 의원은 경선 초중반까지 제3지대에 머물다 김종민 신동근 등 다른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캠프에 합류했다. 일각에서는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3선 박광온 의원의 공동총괄본부장행이 점쳐진다.

◇선대위원장·총괄본부장 등 '공동 체제'... 최측근 김영진 상황실장 유임=선대위원장, 총

괄본부장 등 핵심 직책은 복수의 인물이 기용되는 복수체제로 가동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후유증을 털어내고 '원팀 기초'를 극대화하려면 수평·집단지도체제 방식이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

설훈·홍영표 의원이 합류할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는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변재일 의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지난 주 이 후보와의 회동을 통해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각각 수락한 바 있다.

총괄본부도 박광온 의원과 함께 이 후보 측 조정석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안규백 의원 등이 함께 이끄는 공동본부장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상황본부는 앞서 이재명 캠프 패처럼 기구 명칭을 '상황실'로 하되 이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이 실장을 계속 맡을 예정이다.

상황실 역시 공동실장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를 후방에서 지원해 온 이 해찬 전 대표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맡기로 한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영길 당 대표는 관례대로 당영직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최고위원들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을 방침이다.

한편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측은 초재선 여성 의원과 외부 여성 인사를 '파격 배치'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시-지역 국회의원 현안사업 해결·국비확보 힘 모은다

광주시청서 예산정책협의회 현안 7건·국비사업 40건 등 1178억원 추가반영 협조 요청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현안 관련 법 제정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의원들은 지난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영덕·이병훈·송갑석·이형석·이용빈·민형배 등 민주당 6명을 비롯해 무소속 양항자, 정의당 강은미 등 의원 8명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캐스퍼를 탄생시킨 광주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경차 혜택 확대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노동자 주거비 지원 등 공동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거점으로 하는 AI 중심도시 육성 관련 법률안도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광주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 대선 공약 반영, 광주시 의료원 설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빛고를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 등에 지원을 부탁했다. 국비와 관련해서는 장륙습지 훼손지 복원,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기획연구 용역,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40건, 1178억원 사업비 추가·증액을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근거법안 마련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2022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 상임위 위원, 예결위원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민주당과의 당정책협회를 시작으로 6월 정의당 예산정책간담회,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정부예산안에 3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첫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예 능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